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임정기/편집인 : 김동규/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회회의 단체 회원은 2009년 4월 현재 184종 학술지(의학 회, 의협 및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 139, 의과대학 학술지 12, 기타 학회 학술지 33)이며, 개인회원이 38명이다

또한 특별회원은 우리회와 (주)XMLink가 새로 가입하여 광문출판사, (주)누리미디어, 아카데미, 엠투커뮤니티 메드랑

(의학문화사), 중앙문화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Google Inc., JOY DESIGN, KISTI, NHN(주) 등 총 1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단체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사무국(Tel: 798-3807(내선 108), Fax: 794-3148)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기고] 영문 학술지의 PubMed 등재 지름길

허선(정보관리위원장, 한림의대 기생충학)

2009년 2월 26일자로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가 PubMed Central(이하 PMC)에 등재되어 총 7종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이하 의편집) 학술지가 PMC에 등재되었다. PMC 548종 학술지 발행국 가운데 영국(293), 미국(152), 캐나다(22), 네덜란드(19), 이집트(10)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2010년 3월이면 의편집 학술지 20여종이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Medline 학술지가 아닌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및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두 종이 PMC에 등재 후 바로 PubMed 등재되었다는 점이다. 즉, Medline 등재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PubMed 등재라는 지름길이 있으므로, 영문 학술지를 발행하는 편집인이라면 이제 PMC 등재가 필수이다. PMC 등재는 영문으로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라면 자격이 되고, 전문을 PMC XML로 만들어 보내어 XML 제작 기술을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PMC는 개방 학술지 및 무료 학술지를 취급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이곳에 등재되면 바로 PubMed에 등재되고 전문 검색이 된다는 장점 이 외에는 무료로 내용을 제공하므로 인용을 받을 기회가 커진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 가운데, 국제적인 상업회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소속 기관에서 구독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일부 나라에 국한되었기에, 이제 유사한 내용이 PMC에 있다면 그것을 인용하지 굳이 경비를 들여 상업회사의 유료 학술지를 인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PMC 및 PubMed 등재는 투고자에게 국제 정보 시장에서 개개 논문의 질로 평가 받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학술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영문 학술지를 발행하여 SCI 학술지로 카우거나, 기존 SCI 학술지라도 인용도지표(Impact factor)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PMC 등재는 필수이다. 등재를 원하는 영문 학술지 발행 단체는 의편집 사무실로 연락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끝**



PubMed Central 등재 학술지 현황

지난 2008년 11월 우리나라 학술지 중 가장 먼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가 등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PMC에 등재된 우리나라 학술지는 7종이 되었다.

또한 현재 Synapse에 참여하고 있는 46종의 학술지 중 6종의 영문 학술지가 PMC와 계약완료 후 학술지 set-up을 준비하고 있거나 Technical Requirements test를 받고 있으므로, 더 많은 학술지가 PMC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 PubMed Central Journals (7종)

-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2006-)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08-)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2007.10.-)
-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2007-)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2007-)
-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2006-)
- Yonsei Medical Journal (2007-)

☞ In Progress (6종)

Stage 1 : PMC's Scientific Quality Standard

-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Stage 2 : Technical Requirements for PMC Journals Journal set up

-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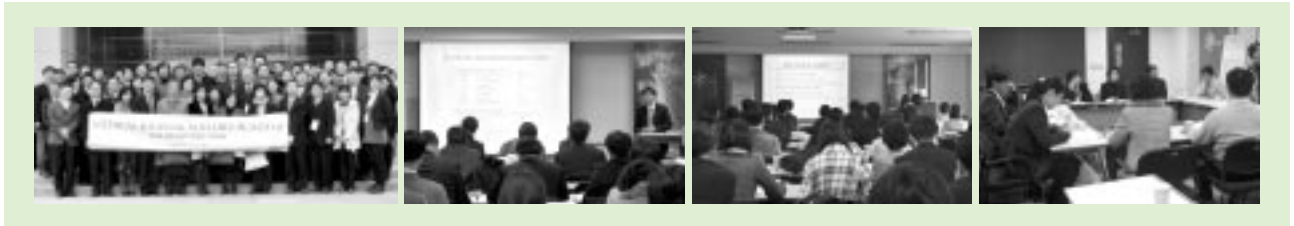
제 2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본 협의회에서는 단체 회원 학술지 편집인이 학술지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 편집하고 국제 유통망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 2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제 2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2008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70여명의

회원 학회 학술지의 편집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20여개로 구성된 각 강의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아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 학술지 편집인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카데미 자료는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의 “소식지 /Workshop 자료”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09년도 의학학술지 평가회 일정

기획평가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학술지 평가사업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평가 받을 대상 학회에는 평가회 전에 안내 공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해당 학술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과학성 검증을 위한 일단계 평가

- 대상 : 의편협 및 의학회 임회 신칭 학술지
- 일시 : 2009년 6월, 2010년 1월

☞ 제 24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

- 대상 : 의편협 회원학술지 중 KoreaMed 미등재 학술지
- 일시 : 2009년 6월 25일(목)
- 장소 : 미정

☞ 제 8차 의학학술지 재평가

- 대상 : 2002년도 KoreaMed 등재 학술지
- 일시 : 2009년 11월 26일(목)
- 장소 : 미정



회원 학술지 납본 안내

본 협의회는 회원 학술지의 학술지 정기발행을 확인하고 발간 기일 준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코리아메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협의회로 학술지를 정기 납본하여 줄 것을 공지한 바 있다. 전체 회원 학술지는 원문 파일(텍스트 PDF나 HWP 등)과 인쇄본 2부를 납본하여야 하며, 인쇄본은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협의회에 도착한 경우만 정시 발행으로 인정된다.

납본 현황은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 “학술지 제출 상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파일 올리는 곳 :

www.webhard.co.kr (ID: kamje, PW: kamje)

☞ 인쇄본 보낼 곳 :

(우)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3층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행 지연 KoreaMed 학술지의 처리 지침

학술지의 정기성과 전문가 심사(Peer Review)는 학술지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KoreaMed 등재 학술지의 2008년도 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기성을 준수하지 못한 학술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의편협 임원회의(2009년 3월 18일)에서는 학술지 발행의 정기성은 국내외 학술정보색인기관의 등재와 학술지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하며 발행 간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KoreaMed 학술지에 대한 처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 대상 : 발행일을 3개월 이상 초과하여 발행 일자를 지키지 못하는 학술지
- 1차 조치 : 발행일을 3개월 이상 경과한 학술지에 대해서 경고
- 2차 조치 : 경고를 받은 학술지의 간기가 다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학술지는 KoreaMed, KoMCI에서 삭제
- 삭제 후 조치 : DB에서 탈락된 학술지가 2년간 간기를 잘 지켜서 발행하면 기획평가위원회에서 별도 검토 후에 재등재 여부를 검토



2009년 정기총회 및 의학논문 연구출판윤리 심포지엄

2009년도 정기총회가 3월 27일(금)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평형의학회지를 비롯한 18개의 학술지를 단체회원으로 인준하고 우리의학사와(주)XMLink를 특별회원으로 인준했다.

또한 국제 학술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의학학술지 평가항목」을 개정하는 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받았다. 총회 후에는 인하공대 김형순 교수의 특강과 의학논문 연구

출판윤리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2008년도 연구윤리활동 지원사업(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연구출판윤리에 대한 7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되었던 내용은 아래 일정표를 참고하기 바라며, 발표 자료는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의 “소식지/Workshop 자료”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정기총회>

13:00~13:50 정기총회

사회 : 김동규 (서울의대, 의편협 운영위원장)

<특 강>

14:00~14:40 SCOPUS 심사 과정 소개

김형순 (인하공대)

<심포지엄 : 의학논문 연구출판윤리 심포지엄>

14:40~14:45 개회사

사회 : 배중우 (경희의대, 의편협 출판윤리위 간사)

임정기 (서울의대, 의편협 회장)

14:45~15:15 연구출판윤리의 중요성, 중복출판

좌장 : 서창욱 (연세의대, 의편협 부회장)

함창곡 (한양의대, 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

15:15~15:40 날조, 변조, 표절

김수영 (한림의대, 의편협 출판윤리위원)

15:40~16:05 생명윤리와 동의

김옥주 (서울의대, 의편협 출판윤리위원)

16:05~16:30 자료의 분석과 표현

박병주 (서울의대, 의편협 개인회원)

16:30~16:40 휴 식

좌장 : 박찬일 (의편협 前회장, 출판윤리위원)

홍성태 (서울의대, 의편협 기획평가위원)

16:40~17:05 저자됨 이해관계

조승열 (의편협 前회장, 출판윤리위원)

17:05~17:30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이춘실 (숙명여대, 의편협 정보관리위원)

17:30~17:55 연구와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7:55~18:10 종합토의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KoMCI 2008 발간 예정

의편협의 의학학술지 평가를 통해 KoreaMed에 등재된 142종(2008년 기준)의 국내 의학학술지 상호간의 인용 형태를 분석한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KoMCI 2008]이 발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8년도 국내 의학학술지의 게재 논문수, 한국 문헌 인용 비율, 자체학술지 인용 비율, Impact Factor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oMCI 2000이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이듬해로 발간되는 보고서이다.



Najeeb Al-Shorbaji. Index medicus for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Emerg Themes Epidemiol. 2008; 5 : 14.
doi : 10.1186/1742-7622-5-14.

[내용 요약]

세계보건기구(WHO) 동지중해 지역사무소(Office for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EMRO)는 22개 국가에서 출판된 408개의 학술지에 대한 의학문헌색인데이터베이스 (Index Medicus for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IMEMR)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국제적 색인 초록 서비스를 갖추지 못했던 중동지역 국가들은 이를 통해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MEDLINE 등)에 미등재된 의학 분야 학술지들을 한곳에 수록할 수 있었고 중동지역 의학문헌의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현재 등재된 408개의 학술지중 181개 학술지(44.5%)가 온라인 학술지이며 이것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Open Access를 기본으로 한다. 이 중 세 개의 학술지는 인쇄된 학술지 없이 오직 전자학술지(E-Journal)로만 출판되고 있다.< 표1 >

IMEMR의 등재 학술지는 중동지역의 전 의학 분야를 포함하며 전문가심사제를 운영하는 학술지로 아랍어, 영어, 페르시아어로 등으로 작성되었으며 초록과 서지 정보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 등재 학술지 선정 기준은 분야 지역적 배려 그리고 전문가심사의 3가지로 한다. IMEMR의 색인규정은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Medical Subject Heading(MeSH)을 사용한다. 자료 입력, 철자 및 인쇄상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MeSH의 전자복사본을 논문의 주제 영역이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하고 이 시스템은 MeSH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들을 제외시킨다. 또한 각 논문마다 최소 5개 이상의 주제명이 부여되고 MEDLARS database의 색인규정과 같이 세부 영역이 나눠지게 된다. 2005년 이후 추가된 모든 논문들은 초록이 제공되며 현재 39,109개 논문의 초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MEMR 플랫폼은 유네스코의 컴퓨터화된 정보검색패키지 WINISIS(Integrated Set of Information Systems, Windows version)로 색인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WHO-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entre on Health Science Information에 의해 개발된 검색엔진은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 구성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데이터 구성요소들은 유네스코의 Common Communication Format과 Dublin Core를 따르며, 검색결과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의학색인 데이터베이스 MEDLINE에는 408개의 학술지 중 62개의 학술지(15.4%)가 등재되어 있으며, EMBASE에는 28개의 학술지(8%)가 등재되어 있다. 이같이 MEDLINE과 EMBASE에 등재된 학술지들은 IMEMR 저널리스트에 등재여부가 표시된다.

WHO EMRO는 중동지역의 의학학술지 출판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 의학학술 커뮤니티에 IMEMR 학술지를 소개시키며 문헌검색의 툴로 사용한다. 또한 의학학술지의 전문가심사, 편집 문헌검색,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사례 연구, 논문의 압, 인용 방법, 프레젠테이션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학술지구독 및 배포, 학술지 출판을 위한 설비 확충, 학술지 제본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지중해 지역 국가의 국제적 의학문헌의 서지사항 표준에 알맞은 색인 및 초록사업을 지원한다.

IMEMR은 EMRO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으며 이는 지식정보의 관리와 공유 프로그램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끝

Table 1: EMR health and biomedical journals

Country	Total No. of Journals in the IMEMR N = 408	Total No. of articles in the IMEMR N = 91,249	%	Total No. of online journals N = 181	%
Bahrain	3	1,298	1.4	1	0.6
Egypt	115	39,578	43.5	22	12.0
Iraq	30	2,228	2.5	1	0.6
Islamic Republic of Iran	101	4,429	4.8	66	36.5
Jordan	5	1,139	1.3	4	2.1
Kuwait	4	2,072	2.3	3	1.7
Lebanon	9	2,140	2.3	5	2.7
Libyan Arab Jamahiriya	5	384	0.4	2	1.1
Morocco	6	1,404	1.5	0	0.0
Oman	2	675	0.7	1	0.6
Pakistan	63	16,373	18.0	53	29.3
Palestine	3	85	0.1	2	1.1
Qatar	4	715	0.8	2	1.1
Saudi Arabia	21	9,324	10.2	9	5.0
Sudan	9	369	0.4	2	1.1
Syrian Arab Republic	9	926	1.0	2	1.1
Tunisia	8	4,575	5.1	1	0.6
Untied Arab Emirates	3	992	1.0	3	1.6
Yemen	7	107	0.1	0	0.0
Other non EMR countries	8	1,577	1.7	1	0.6
Regional journals	1	859	0.9	1	0.6